



BNK부산은행, 부산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오른쪽 첫번째)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iM뱅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참여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생명 나눔 가치 실현 및 자발적 헌혈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앞쪽 가운데)이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iM뱅크



인하대학교가 겨울방학 동안 '인하 동계방학 봉사활동 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실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인하대

신한금융 희망재단 “스퀘어브릿지 인천” 신청하세요”

신한금융 희망재단이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6일 까지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과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가 딥테크, 바이오테크,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 등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재무 진단 및 신한은행 RM 연계 ▲전용 펀드 투자 연계 ▲인천스타트업파크 사무공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특히 신한금융과 인천시, 셀트리온 등 민·관이 협력해 상용화 검증,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체결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도 제공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신한금융 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달 20일에 최종 선정업체가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해외건설협회 ◇본부장급 보직 △경영지원본부장 겸 상무이사 김태엽 △글로벌사업본부장 겸 상무이사 김윤동 △정책본부장 겸 상무보 전창구

라이엇게임즈, 7번째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후원

‘경복궁 선원전’ 편액 환수 성공
27일 고궁박물관에서 공개 예정

경복궁 전각 선원전의 편액이 100년 만에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례를 올리던 신성한 공간이다. ‘선원(璫源)’은 ‘옥(玉)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의 혈통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편액은 종이나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액자로, 보통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두는데 건물의 규모와 격식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은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일본에서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환수된 편액은 3·1절을 앞둔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경복궁 선원전(璫源殿) 편액 정면.

했다. 환수된 편액은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된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예정이다. 또, 편액이 건축·서예·공예가 결합한 종합 예술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학술 연구와 전시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환수는 라이엇게임즈가 지원한 7번째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사례다. 라이엇게임즈는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원 약정을 맺고,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앞서 ▲석가삼존도(2014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 등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기여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예경탁 은행장,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회장 당선

(BNK경남은행)

지역 육상·체육현신에 높은 평가

BNK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이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6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3일 밝혔다.

예경탁 은행장은 지역 육상과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경상남도육상연맹 통합 5대 회장에 이어 6대 회장으로 재차 선정됐다.

앞서 경상남도육상연맹 선수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32회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육상경기’에서 2위, ‘제30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육상경기대회’에서 3위를 거두는 등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오른쪽 두 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또한 BNK경남은행은 지난 1997년부터 경상남도육상연맹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경상남도를 대표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

상남도육상연맹 소속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육상이 지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NH투자증권 김석찬 총괄대표 선임 (경영지원부문)

NH투자증권은 김석찬 부사장(사진)을 경영지원부문 총괄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198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중앙회 소득지원국 국장, 회원종합지원부 부장,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생명 사업2부문 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영업, 마케팅 및 경영 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김부사장은 농협중앙회, 은행, 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서 요직을 거친 금융 전문가”라며 “앞으로 그룹 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우수연구실 명판과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연구 안전관리 역량 인정받아

현대로템이 연구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현대로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정부가 산학연 각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인증은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경영 활동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개 분야에

서 각각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한 곳은 레일솔루션연구소 산하 수소모빌리티 시험실, 조합 시험장 등 2곳이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온 ‘광주 푸드클럽’ 행사

롯데온은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력해 ‘광주광역시 푸드 클럽’ 행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의 유명 맛집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 개발한 밀키트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명당 안유성 명장의 ‘한우 나주곰탕’ ▲광주세계 김치문화축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빛고을김치 갓김치’ ▲광주 서구 치평동 ‘삼희불닭’의 ‘삼대나지 낙지볶음’ ▲광주 남구 진월동 ‘시골향추어탕’ 등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